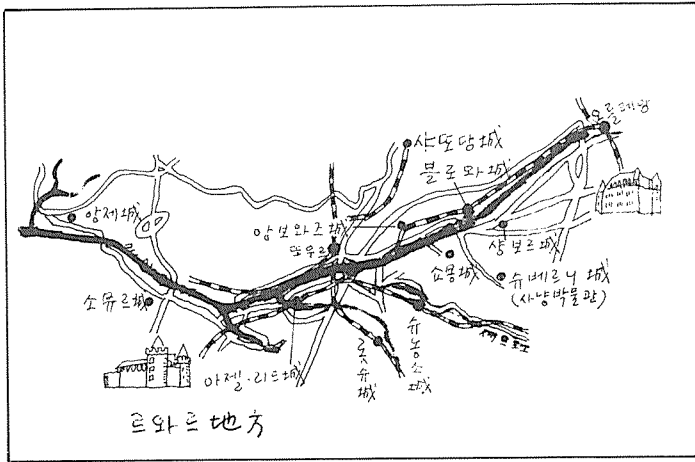


## 르와르 강변의 古城들

김윤기



프랑스의 한 중심부를 흐르는 프랑스의大河 르와르강 일대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류의 지앵(Gien)에서 하류의 앙제(Angers)에 이르는 약 400킬로되는 강유역이 르와르지방이다.(르와르강의 길이는 1,020km).

무성한 숲과 강이 있고 또 파리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기차로 1~2시간 거리), 옛 권좌의 중심부가 가끔 이곳으로 이동, 정사(政事)를 집행했다. 때문인가, 성이 많다. 이

부근의 성은 줄잡아 수백개에 이른다.

성을 중심으로 자연의 숲과 인공의 정원이 알맞게 조화되고, 또 작은 시골 마을이 형성되어 프랑스에선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르와르지방의 고성들을 모두 구경하려면 1주일만 가져야한다. 그러나 바쁜 여행자를 위해서 파리에서 당일치기 관광코스도 나와 있다. 당일치기는 성 3, 4개소를 순방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름난 성들을 고루 보려면 최소한 1박2일이 필요하다.

르와르의 사투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

름다운 언어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세계각국의 언어학도들이 이곳에 와서 연수를 한다.

### 잔다크의 도시, 오를레앙

오를레앙(Orléan)은 르와르지방의 중심 도시다. 파리에서 특급열차를 타면 1시간 10분만에 이곳에 닿는다. 오를레앙은 잔다크의 도시다. 잔다크가 출생한 곳이기도 하며, 시내에는 곳곳에 잔다크를 기리는 기념물이 있다.

도심 한복판 마르뜨로와廣場에는 거대한 잔다크의 동상이 서 있다. 시청사 앞에도 잔다크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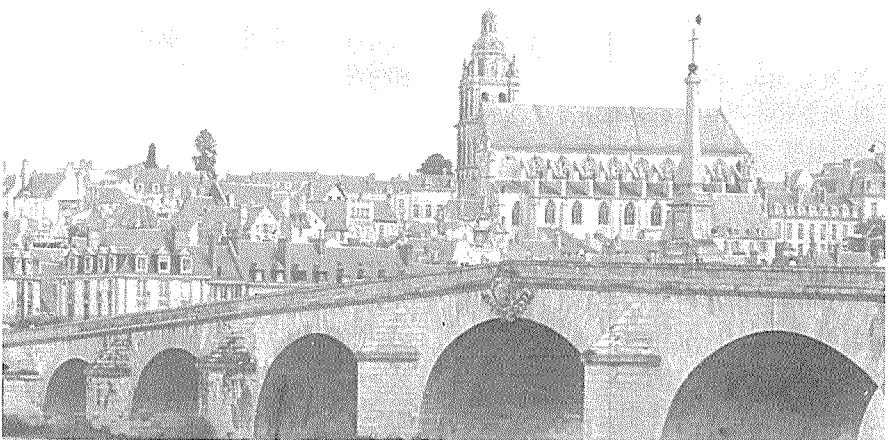
시청과 마주 서 있는 쌍뜨크로와寺院은 2개의 뾰족탑과 푸른지붕을 가진 프랑보와

이안식의 교회로 오를레앙의 심벌이다. 마르뜨로와 광장에서 남쪽으로 뚫린 길을 내려오다보면 오른쪽 골목안에 잔다크의 집이 있고 정면에는 죠르쥬쌍크橋가 있다. 이 다리는 잔다크가 영국군과 싸워 전승을 올렸던 전적지이기도 하다(원래의 다리는 100m쯤 상류쪽에 있었다함).

### 16세기 政治首都, 블로와

블로와(Blois)는 1498년 루이12세 시대부터 100년간 프랑스의 정치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루이12세를 비롯 프랑소아1세, 앙리2세, 프랑소아2세, 샤를르9세, 앙리3세등 6명의 왕이 성주로 군림했던 블로와성은 「16세기의 벨사이유」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 중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블로와市. 르와르江의 북쪽이 올드타운이다.



루이12세의 출생에는 기적같은 실화가 있다. 루이12세의 부친 샤를르·드물레앙은 100년 전쟁때 25년간 영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났는데, 70세때 낳은 아들이 루이12세다. 루이12세는 어려서 이곳에서 자라, 왕위에 오르자마자 궁정을 파리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있다.

블로와성은 루이12세관과 프랑소아1세관이 명성(名城)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이12세관은 흰돌과 벽돌로 지은 후기 고딕식 건축물인데, 중앙의 정면에 왕관을 올려놓은 루이12세의 기마상이 서 있다.

그런데 이 기마상은 자세히 보면 말이 오른쪽의 앞발과 뒷발을 동시에 들고 걷는 모습을 하고 있다. 말은 이런 주법(走法)으로 걷는 일이 없다. 조각가의 큰 실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각가는 자살하고 만다. 지금은 시립미술관이 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프랑소아1세관은 루이12세관보다 10년 후 건립되었다. 르네상스식의 우아한 건축물인 이 성관은 나선형의 계단과 팔각기둥을 가진 발코니가 명물이다. 발코니는 3면이 노출되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나선형 계단내부는 온통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내실 벽난로에는 왕과 왕비의 문장(紋章)이 새겨져 있다.

앙리3세 침실은 왕위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라이벌이었던 기즈공을 암살했던 방이다. 당시 비극의 암살장면 그림이 벽에 걸려있다. 기즈를 살해한 앙리3세는 겨우 1년의 권좌를 누리고 다음해 암살된다.

**“르와르 지방의  
고성을  
모두 구경하려면  
1주일엔 걸린다.**

**그러나  
바쁜 여행자를 위한  
당일치기  
관광코스도 있다.”**

#### 상보르城의 이상한 나선계단

블로와성에서 강 건너 바라다보이는 곳에 상보르(Chambord)城이 있다. 상보르城은 르와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성이다. 1519년, 프랑소와1세에 의해 건립되기 시작한 이 성은 방이 440개, 계단이 80여개, 굴뚝은 365개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인데, 공사기간은 15년이 걸렸다.

이 성에는 이상한 나선형계단이 있다. 정면 천수각(天守閣, Donjon) 중앙에 2층으로 된 이 계단은, 두사람이 따로따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 서로 만나지 않게된다. 이 계단은 다빈치의 작품이다. 나선형계단을 밟고 옥상 테라스에 오르면 종루와 탑, 굴뚝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상보르城은 기차로는 갈수없다.



▲양보와르城. 다빈치가 설계한 고딕식 건축물이다. 양보와르城은 르블, 벨사이유官등 프랑스 궁정 건축의 원형이 되었다.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분은 구 시가지와 르와르江.

### 수력 엘리베이터가 있는 양보아즈城

르와르江을 타고 내려오다보면 오른쪽 바위산 위에 양보와즈(Amboise)성이 있다. 양보와즈성은 레오날도 다빈치가 그의 만년을 보낸 곳이다. 프랑소아1세의 초청으로 이곳에 온 다빈치는 양보와즈성의 개축과 성관 건설설계를 맡았다. 왕은 그의 어머니의 집 「끌로·류세館」을 하사했는데, 이 집에서 성관건축구상과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끌로·류세관에는 다빈치가 발명한 수력을 이용한 엘리베이터와 냉방장치가 보존되어 있다. 이밖에도 천재적인 그의 발명품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양보와즈城은 고딕식 건축물로 이탈리아에서 온 건축가·조각가·조원가(造園家) 등이 참여했다. 지금의 성은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지만, 프랑스 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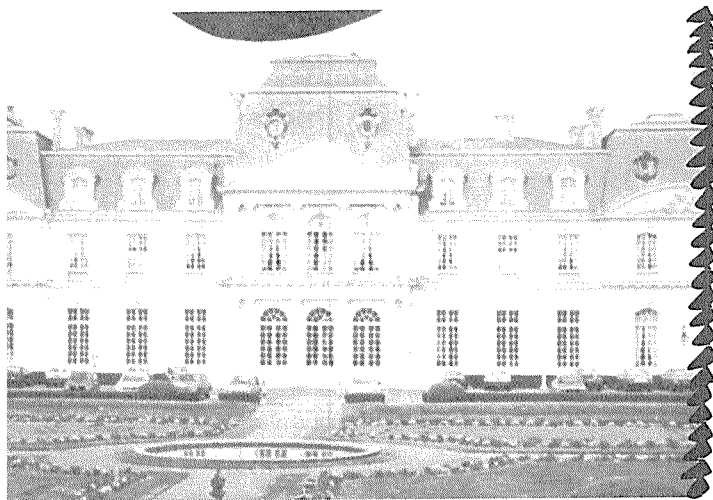
文化가 이곳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했고 르블, 베르사이유官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궁궐의 원형이 양보와즈城이었다.

양보와즈城에는 역사적인 비화가 있다. 세상에는 「양보와즈 음모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1560년 가톨릭 기즈家를 습격한 프로테스탄트가 실패하자 시신을 8개 조각으로 찢어 강에 던져버렸다. 이 끔찍한 처형 이후 이 성을 지날때는 모두 가슴에 十字를 그리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1498년에도 비극이 벌어졌다. 이 성을 개축한 샤를르8세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또 과부가 된 왕비 앙누는 새로 국왕이 된 루이12세와 결혼해 버렸으니, 왕은 바뀌었으나 왕비는 그대로 되버린 격이 되었다.

아직 남아 있는 건물로는 거대한 원탑 미남트와 산뉘베르 예배당, 왕의 거소였던 Logis du roi 등이 있다. 미남트탑은 계단대신 빙글빙글 돌아가는 비탈길이 꼭대기까지 뚫려있어 말을 탄채 오를수도 있다 한다. 프랑보와이안 고딕식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산뉘베르예배당에는 다빈치가 묻혀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성에 있는 침대들은 폭이 좁고 짧다. 당시에는 침대에 편히 누워서 자지 않고, 비스듬히 기대어 잠을 잤기 때문이다. 다리뻗고 누워서 자면 죽는다는 신앙(?) 때문이었다 한다. 프랑스·르네상스의 화려한 문화의 개화시기는, 잠조차 편히 잘수 없는 불편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 르와르지방의 古城 호텔(사또·다르띠니). 옛날 귀족의 성관을 호텔로 개조했다. 로맨틱하고 고전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세의 귀족 기분을 느끼게 한다.

### 역대 城主가 모두 여성인 슈농소城

앙보와즈의 강건너에는 슈농소(chenonceau)城이 있다. 흔히 샹보르城을 남성적, 슈농소城을 여성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르江(르와르江의 지류) 위에 지은 우아하고 섬세한 성관의 건축미도 귀부인들이 가지만 공고롭게도 이 성의 역대 성주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 성을 지은이도 여성이었다. 프랑소아1세때 재무장관이던 드마·보이에가 이 성을 지었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부인 까뜨린느·부리소가 공사감독을 했다.

결국 이 부인이 초대성주가 된 셈이다. 2대 성주는 디안느·드·뵘와디예라는 기묘한 여성이었다. 원래 이 부인은 앙리2세의 가정교사였는데, 프랑소아1세의 애첩이 되었다가 20살이나 연하인 앙리2세의 애인으로 변신한다. 나이는 많았지만 너무 피부가 고와 60살때 30살짜리 여성 같았다고 한다.

앙리2세는 연상의 여인에게 닦을 빼앗겨

왕비도 잇을 정도였다. 왕이 죽자 형제는 역전되어, 디안느는 쫓겨나고, 과부가 된 왕비 까뜨린느·드·메디시스가 3대 성주로 등장한다. 까뜨린느는 강물위에 갤러리를 짓고 성관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꾸었다.

5대 성주였던 듀팡夫人은 쌀롱을 열어 고급사교장을 만들었다. 루소의 명작 「고백」은 이때 이곳에서 집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수없이 많은 名城들

이밖에도 르와르지방에는 2천개가 넘는 녹각(사슴뿔)을 전시하고 있는 슈베르니城, 왕이 죽은뒤 한때 섭정을 했던 까뜨린느왕비가 살았던 쇼몽城, 프랑스의 「황성옛터」 쉬농城 등 수없이 많은 名城들이 있다.

〈필자= 해외의 학교류회장. 최신여행정보 발행인〉